

제 44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일 시 : 2001년 1월 3일 (수) 12:00

장 소 : '일본대사관'이 있는 교보빌딩 소공원에서

주 관 : 2000년법정 한국위원회 검사단

주 최: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차 례 **

1. 개회사: 수요시위 시작을 알리며
2. 정대협 활동 및 경과보고 : 양 미 강 (정대협 총무)
3. 자유발언 : 참가자 중
4. 성명서 낭독 및 구호 제창
5. 함께 불러요! (2000년 국제법정의 노래)
6. 폐회 및 광고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노래>>

새세기의 깃발을 높이 올려라. 참세상을 부르는 진실의 힘, 정의의 힘, 그 이름으로 양심과 평화의 메아리가 되어 2000년 국제법정으로 힘차게 나가자. 양심과 평화의 메아리가 되어 2000년 국제법정으로 힘차게 나가자. 2000년 국제법정으로 힘차게 나가자.

※※※ 한 목소리로 외쳐 봅시다!! ※※※

- 일본 정부는 국제 법정이 인정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즉시 취하라!
-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수교에 있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피해자에게 배상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과 맺은 청구권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하며, 한일 수교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하라!
- 한국 정부는 '위안부'등 일제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 한국 정부는 귀환하지 못하고 외국에 버려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귀환 등 인도적 조치를 취하라!
- 한국 정부는 일제 전범을 색출하여 입국을 금지하라!

442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442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21세기가 시작된 지 사흘 밖에 안됐지만, 우리는 과거 20세기의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기에 다시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다. 새로운 세기에는 새로운 전망과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야 하겠으나 잊을 수 없는 일, 묻어둘 수 없는 일이 있기에 거센 찬바람을 맞으면서 여기서있다.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여야만 한다는 굳은 각오를 하면서.

작년 12월 일본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서 남북 공동검사단은 일본 천황을 포함한 개인들의 형사 책임과 일본 정부의 국가 책임을 물었으며,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하여 국제법정은 일본 천황과 일본 정부가 아시아태평양의 여성들에 대한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있던 없던 그들의 행위는 역사의 법정, 정의의 법정에서 유죄이고, 책임이 있는 것이며, 국제법정은 20세기를 마감하기 전에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본 정부는 그들의 책임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기에 국제법정의 판결을 우리 노력의 최종 결실로 생각하여서도 안되고 실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노력은 일본 정부에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압박을 가하며, 한국 정부가 스스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촉구하고 독려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광복과 해방은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당하였으며 어떻게 사는지를 기억하고, 이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묻고 싶다.

- 일본 정부는 국제 법정이 인정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즉시 취하라!
-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수교에 있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피해자에게 배상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과 맺은 청구권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하며, 한일 수교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하라!
- 한국 정부는 '위안부'등 일제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 한국 정부는 귀환하지 못하고 /외국에 버려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귀환 등 인도적 조치를 취하라!
- 한국 정부는 일제 전범을 색출하여 입국을 금지하라!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442차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호소문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것을 원합니다. 또 정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누가 우리의 할머니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저질러진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UN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본인의 행위가 비인도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하여 배상하고 사죄하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마디 말도 없고 무시하고 묵살해 왔습니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던 일본인을 미국 정부가 수용소에 강제 수용했습니다. 종전 후 수용 당했던 일본인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과 이탈리아인들은 수용하지 않고 일본인 만 수용하여 차별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 일본인들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수용되었던 일본인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수용 당했던 고통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국에 기념공원과 기념비를 세울 것을 미국 정부와 합의하여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은 다 받아 내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 할머니에 대하여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지만 종전 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여 한 삶도 빠짐없이 배상하고 사죄한 결과 지금은 과거에 저질러진 한 사건으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일본 정부는 독일 정부가 한 것과 같은 사죄와 배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한국 민족이 당한 피해에 대한 청산을 일본 정부가 하루 빨리 실천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사이좋은 이웃으로서 믿음과 인도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매주 수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물을 흘리면서 부자유한 몸으로 질규하며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제 회의 시위가 열릴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8년간이나 계속된 시위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박세영